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3차(중간발표) 지원심의 총평

- 사업유형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3차(중간발표) 서류 및 인터뷰심의
- 심의분과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심의일시 : 2019년 9월 9일(월) 10:30~18:30
- 심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및 실험무대
- 심의위원 : (가나다순) 김민정, 김숙중, 안치운, 윤광진, 최원중

1. 이 사업의 이름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이다. 여기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명칭은 연구생이다. 1차는 서류심의, 2차는 인터뷰 심의로 최종 6명이 선정되었고, 이 총평은 이들의 중간발표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결정에 관한 것이다. 중간발표 이전에 이미 조사연구, 중간발표 명목으로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번 중간발표 심의는 최종 공연 기획안, 실연, PT, 인터뷰로 진행된 심의로, 5인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최종 지원금은 극작 3명이 각각 1500만원, 연출 1명이 3000만원 그리고 2명이 2500만원이다.

2. 이 사업의 목적은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세부분야로는 극작과 연출이다. 1차로 지원서류를 심사했고, 2차로 지원자들이 PT 및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결정했다. 지원자들의 창작 의도는 매우 열정적이었고, 지원금은 그들의 창작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쓰여지도록 했다. 3명의 극작과 3명의 연출에 대한, 그들이 앞세우는 주제와 표현방식은 다양했고, 성글기도 했다.

2.1 극작 분야 첫 번째 발표자는 야나기 무네요시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통해서 오늘날 한.일 갈등과 연계될 수 있는 시의성 주제를 다루었다. 이런 주제의 전개는 첨예한 역사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심사위원들은 연구생에게 알려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공연에 이르도록 했다.

2.2 극작 분야 두 번째 발표자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여기의 삶과 저기의 죽음을 다루고자 했다. 아직 주제가 분명하게 착근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야기의 원형인 신화를 다룬다고 했지만, 서투른 부분이 남아있고, 내용은 아직 애매모호하다. 이를 보다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3 극작 분야 세 번째 발표자는 미래사회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소재 양식이 흥미롭고, 소극적 양식을 지녔다. 이를 위한 연기양식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이야기 전개가 생동감을 지녔지만, 전체적 구도에서 보면, 어떤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4 연출 분야 첫 번째 발표자는 그 표현형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흥미로운 작업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소방관이라는 아버지의 직업으로 출발한 내용이지만, 이를 통해서 연극이 자기 고백적 형식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여기에 적어둔다.

2.5 연출 분야 두 번째 발표자는 미래세계, SF세계를 전제로 한, 우리 사회의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보여준 실연은 하나의 우화에 머물고 있었다. 앞의 두 세계에 대한 모습을 고전적인 우화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평이해졌다. 구상이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6 연출 분야 세 번째 발표자는 이지적인 작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론적 성찰에 비해서 이야기의 전개는 모호한 듯하다. 공간과 반공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너무 무거워, 그것을 무대화하는 데 아직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현학적인 언어 속에 유평하는 주제들’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론과 내용이 잘 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최종 지원금은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 평등하게 결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 이유는 경쟁을 통한 지원심사가 아니라, 창작의도를 고취시키는 데 지원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연구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금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등지원을 할 것인가, 균등지원을 할 것인가? 심사위원들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최종적으로 극작 부분은 균등지원을, 연출분야는 작품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4. 이 사업의 지원자들은 아직 전문연극인이 아닐 것이다. 수업시대의 고비에 있는 연구생으로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1차 지원, 2차 지원금을 더하면, 웬만한 전문극단의 지원금을 넘어서는 혹은 버금가는 수혜에 해당된다. 공공지원금의 윤리와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진해주길 바란다.

2019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